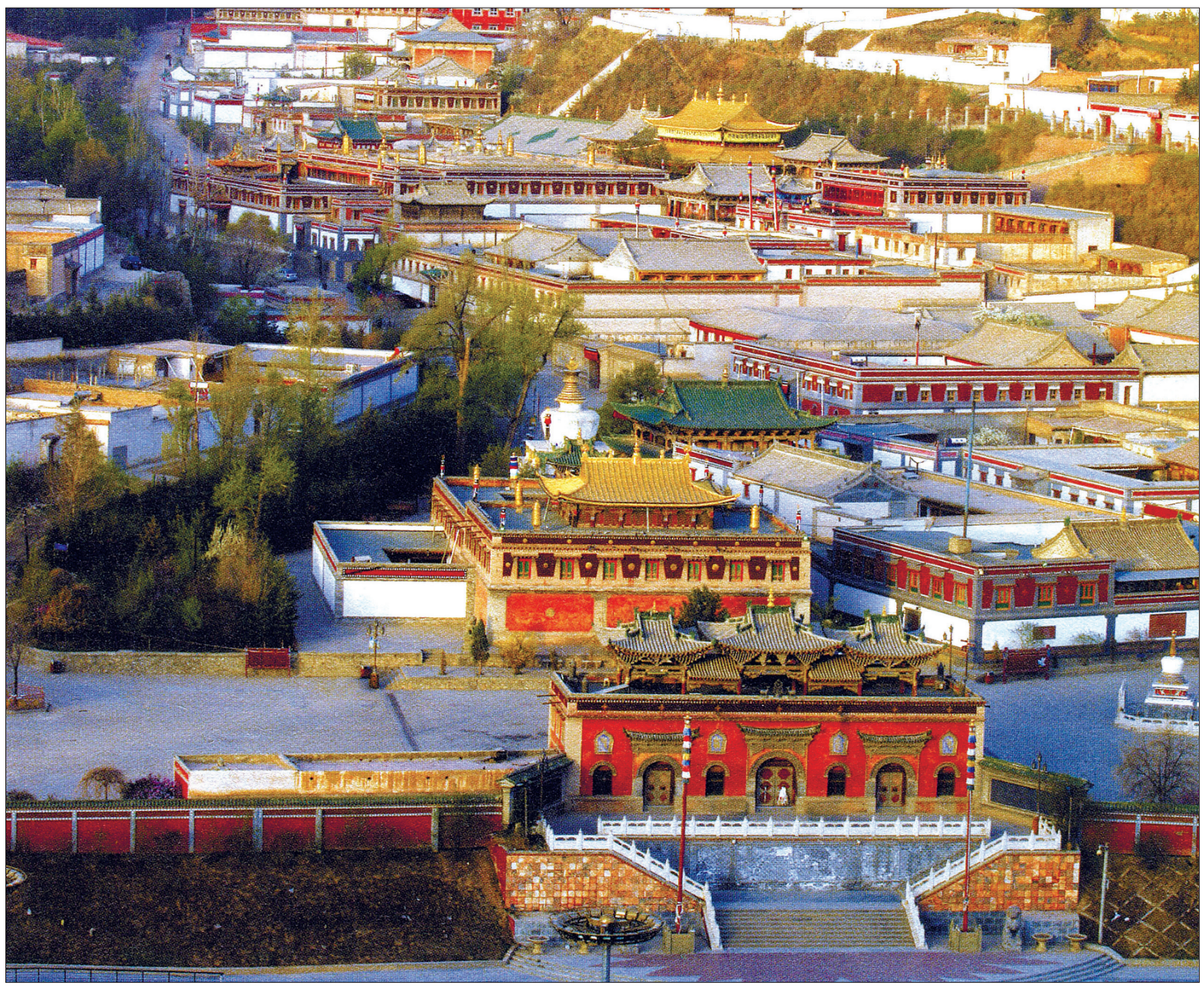


칭하이성을 대표하는 사찰이 타얼사의 전경. 티베트 겔룩파 6대 사찰 중 하나이다.



타얼사 3대 보물 중 하나인 쑤여우화. 야크의 젖으로 만든 불단 장엄물이다.

척박한 대지에 피워낸 고귀한 '信心의 꽃'

칭하이성 대표 사찰은 '타얼사'
겔룩파 6대 사원 가운데 하나
티베트 불교 중흥 쫑카파 탄생처
야크 우유로 만드는 수유꽃 장엄
신실한 티베트인 신심 확인해

티베트 특유 탱화 '탕카' 고향
황남장족자치구에 장인 마을도
서장문화博 1000m 탕카 조성
티베트 민족 역사 · 불교 등 담아
전통문화 보존위한 中노력 확인

'칭하이성'

B1면에서 계속

칭하이성의 별명은 '중국의 물탑'으로, 중국에서 가장 긴 양쯔(揚子)강과 황허(黃河), 란창(瀾滄, 메콩)강의 시발지여서 붙었다. 거대한 13억 인구와 대지를 적시는 중요한 수원지라는 의미로, 중국 정부는 이곳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칭하이성은 면적이 72만㎢로 중국의 23개 성 중에서 가장 크다. 인구는 720만 명으로 크기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인구의 절반가량인 40%는 소수민족들이다. 소수민족으로는 티베트 민족인 장족이 있으며, 몽골족, 회족, 사라족, 토족이 있다. 장족과 토족은 불교를 신앙하며, 회족은 이슬람을 믿는다. 소수민족은 전부 각자 종교를 신앙하고 있다.

칭하이성은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지하자원이 차이다무 분지에 다량 매장돼 있어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정책'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차이다무 분지의 석유탐사와 채굴은 195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 연간 석유 생산량은 500만 톤이 넘는다.

칭하이성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의 일부다. '일대일로'는 서저동고(西低東高)의 중국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서부 대개발 계획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칭하이성도 그 중 하나이다.

마나이신(馬乃新) 칭하이성 외사판공실 부주임은 "칭하이성은 중국이 자랑하는 생태의 보고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도 뛰어나다. 그래서 '아름다운 청해(大美青海)'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얼사서 티베트 불자 신심 확인

칭하이성에서 불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은 단연 타얼사(塔尔寺)다. 시닝시에서 서남쪽 25km 떨어진 황중현에 타얼사가 있다.

타얼사는 티베트 불교 겔룩파의 6대 사원 가운데 하나다. 부지 12ha에 대금와사, 대경당, 여의보탑 등 1천 개의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다. 티베트 불교의 중흥조 쫑카파가 탄생했다는 자리에 세운 탑이 기원을 상징한다. 쫑카파는 겔룩파를 창종했을 뿐 아니라 '보리도차제광론'을 통해 티베트 불교의 수행체계를 완성한 선지식이기도 하다.

사찰 연기설화에 따르면 쫑카파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 태반을 묻었는데, 그 자리에 한 그루 보리수가 자랐다. 보리수에는 10만 장 잎이 자랐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는 하얗게 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편지와 함께 보내며 돌아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쫑카파는 "제가 태어난 자리에 태반을 넣은 불탑을 세우고 마치 저를 바라보듯 하시면 그리움이 덜 할 것"이라는 답장을 보낸다. 이후 어머니는 아들의 당부대로 탑을 세웠다. 타얼사는 이 탑을 중심으로 1560년 창건됐다.

사찰 입구에서 광장으로 오면 바로 보이는 것은 팔보여의탑(八寶如意塔)이다. 1776년에 석가모니의 8가지의 덕(탄생, 성장, 출가, 고행, 깨달음, 전파, 열반, 가르침)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탑이다.

타얼사의 주법당은 대금와사(大金瓦寺)다. 대금와사는 쫑카파의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만든 탑을 1711년 금으로 개조하면서 그 이름을 얻었다. 지금은 법당 내부에 12m 높이의 다인탑(大银塔)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인탑을 살펴보면 순은으로 받침판을 만들고 금을 입혀 각종 보석을 끼워 넣었다. 각종 조명, 상아, 꽃병 등이 주변을 에워쌌으며 탑 위에는 쫑카파 존상이 있다.

타얼사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3대 보물로 전해지는 '쑤여우화(酥油花)'와 벽화, 자수다. 매우 세밀하게 그려진 벽화와 양털로 양감을 만들어낸 자수는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쑤여우화로 장엄된 불단의 아름다움에는 쉽게 발걸음을 뗄 수 없다. 쑤여우화는 타얼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야크의 젖을 원료로 한다. 야크의 젖을 발효해서 굳혀서 형상을 만드는 데 온도가 오르면 녹아서 작업은 겨울에 주로 이뤄진다.

쑤여우화를 만드는 스님들은 자신의 손을 섭씨 0도에 가까운 물에 담가 손의 체온을 최대한 낮춘 후 장엄물을 제작한다. 타얼사의 쑤여우화는 별도 전시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곳 쑤여우화 장엄물들은 섭씨 0도를 유지하는 시설에 보존된 상태로 관람객을 맞는다. 장엄물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체 전시를 하는데 겨울 3개월 동안 제작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타얼사는 1980년대부터 개방했으며, 지금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사중 스님의 보험 등을 책임지고 문화재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현재 사중에는 780여 명의 스님들이 주석하며 수행 중이다. 또한 안에는 4개의 불학원이 있는데 △현종 △밀종 △의학 △실명(역사 · 문화)으로 나눠 교육이 이뤄진다.

타얼사 전각 곳곳에는 티베트 출재가들의 오체투지 수행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오체투지는 언제 봐도 진지하고 숭고하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긍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티베트인들의 힘은 쑤여우화 같은 '신심의 연꽃'이 있어 가능하지 않았을까.

칭하이성 기행을 이끈 한국불교언론 대표단장 진우 스님(불교신문사장)은 그들의 신심에 대해서 이 같이 말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도 오로지 부처님에게만 집중하며, 불편함을 극복하고 스스로 편안해지려는 티베트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에게 집중하며 염송하고 오체투지하며, 쑤여우화를 피워내는 그들의 삶은 곧 '선(禪)'입니다."

탕카, 티베트 불교를 그리다

칭하이성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황남장족자치구의 동인현 지역으로 가보는 것도 좋다. 이곳이 티베트 불교회화 '탕카(Thangka)'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국 정부가 지원 · 관리하는 탕카 제작 장인 마을 정도로 보면 된다. 제작부터 판매까지 모두 가능하기도 하다.

자치구 동인현에서 만난 시야오지엔초 티베트 탕카 국가문화재 보유자는 탕카에 제작 방법과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줬다.

탕카의 주요 제작은 광물질인 주사, 귀주 등 석채로 이뤄진다. 금, 은, 보석도 많이 사용된다. 채취한 석채들은 소가죽으로 된 포장지로 보관한다. 이는 벌레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석채와 함께 수많은 약재들이 함께 사용한다.

시야오지엔초 작가는 "광물에는 독성이 많아 중의학 약재를 섞어 해독한다. 또한 안료가 쉽게 응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탕카가 진귀한 이유는 다양하고 귀중한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어서"라면서 "고가의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 정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닝의 서장문화박물관에서는 1000m 길이의 탕카를 만날 수 있다. 장대한 길이의 탱화에는 티베트 민족의 기원 설화, 역사, 문화를 비롯해 티베트 불교의 시작, 우주론, 사상, 신앙, 의학 등 방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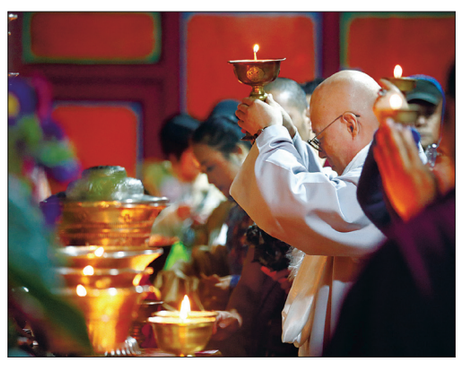
탕카에 들어간 인물은 18만 명으로 겹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석채 마련, 자료 수집 등 제작 준비기간만 23년이 걸렸으며, 400명의 화사(畵師)가 투입돼 4년동안 제작됐다. 제작비만 77억 원이 들어갔다.

쑤여우화도 탕카도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신심의 연꽃이다. 중요한 식재료인 야크의 젖과 희귀한 광물과 약재, 보석을 아끼지 않고 불상과 불화에 사용하는 정성은 한국 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호수 청해호.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며 '신심의 연꽃'을 피워낸 사람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칭하이성에서 만날 수 있는 보물들이다.



티베트 고유 불화인 '탕카' 작품. 현재 중국 국가무형문화재다.



한국불교언론 대표단장 진우 스님이 등공양을 하고 있다.



황남장족자치구 동인현 지역에서 만난 티베트 동자승들.